

January 29, 2020

Asia and the Pacific

유전자교정작물에 대한 전문가와 대중의 견해를 조사한 연구

도쿄의 데이터과학 연구 지원 센터(Joint Support-Center for Data Science Research)와 통계 수학 연구소(The Institute of Statistical Mathematics)의 연구원인 Naoko kato-Nitta 박사가 이끄는 일본 연구팀은 유전자변형작물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쉽게 수용하지 않는 일본에서 다른 신기술 혹은 전통적인 육종 기술과 비교하여 작물 개발에 유전자교정기술을 사용하는 것의 혜택, 위해성 및 가치에 대한 일본 전문가들과 대중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 웹 기반 조사는 분자생물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일반 대중과 과학자를 포함한 지원자 3,1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 분자생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참여자들은 식품 응용에 대해 가장 낮은 위해성과 가장 높은 혜택 또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 기술을 인식하는 반면 일반 대중은 가장 높은 위해성과 낮은 혜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위험 측면에서 일반 대중과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치 측면에서는 분자 생물학 전문가들과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대중은 유전자교정작물을 다른 유전자변형 작물보다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위해성도 적다고 인식하였다.

Kato-Nitta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두가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과학 소통에서 결함 모델의 경계 조건을 밝힐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 모델은 과학적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Kato-Nitta교수에 따르면, 이 가정은 기존 과학에만 유효하며, 그 지식은 교실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지만 유전자교정과 같은 신 과학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두번째로 신 과학에 대한 모델의 가정은 유익성 인식을 증가시키는 데만 유효할 뿐 위험 인식을 감소시키는 데는 유효하지 않다"고 Kato-Nitta교수는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rticle](#) / [Nature Communications](#)

Research

유전자바로알기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유전자교정 규정 추적기 및 색인 발표

미국 비영리단체인 유전자바로알기프로젝트(Genetic Literacy Project)는 어떻게 규제가 혁신을 장려하거나 방해하는지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전자교정 및 유전자교정 규정을 추적하고 색인화 하는 두 가지의 대화형 도구를 개발하였다.

글로벌 유전자교정 규제 추적기 및 색인(Global Gene Editing Regulation Tracker and Index)은 국가별 농업, 의학 및 유전자 드라이브 분야의 유전자 교정 규정을 요약하여 각 국가의 규제 연대표를 보여주고, 파이프라인에 어떤 제품과 치료제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추적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유전자교정 비평가들의 반응뿐 아니라 이 기술에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학자들과 공익 단체들에 대한 정보이다.

GLP가 소비자선택센터(Consumer Choice Center)와 협력하여 개발한 유전자 교정 규제 지수(Gene Editing Regulatory Index)는 국가간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추적기의 정보를 수량화 할 수 있는 지수로 변환함으로써 추적기와 보조 도구 역할을 한다. 규제 측면에서 어느 국가가 다소 보수적인지 보여주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전자 바로 알기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Global Gene Editing Regulation Tracker and Index](#)